

□ **(평가 결과)** 대형은행그룹은 신한은행이(75.4점/100점 만점) 1위를 차지하고 KB국민은행(68.9점)이 2위를 차지

○ 소형은행그룹은 대구은행(75.1점)이 1위, 경남은행(67.9점)이 2위

< 은행권 TECH 평가 결과 >

구 분		'14.하	'15.상	'15.하	'16.상	'16.하	'17.상	'17.하	'18.상	'18.하
대형 은행	1위	신한	국민	신한	기업	기업	하나	기업	하나	신한
	2위	우리	신한	하나	신한	신한	신한	신한	기업	국민
소형 은행	1위	부산	부산	부산	부산	경남	대구	경남	부산	대구
	2위	대구	대구	경남	경남	부산	경남	대구	대구	경남

* 기업은행은 '16년부터 시중은행과 동일 그룹에서 경쟁(16년 前 기은은 특수은행 그룹)

< 대형 은행 >

- ① 신한은행은 높은 배점이 부여된 대출의 질적구성 평가*에서 큰 격차로 타 은행을 앞섰으며** 기술기반 투자 등 타 분야도 전반적으로 우수하여 3년만에 종합평가 1위

* 기술기업지원 평가(45점) : 신용대출비중, 초기기업비중, 우수기술기업비중 등

** 1위 신한은행(41.8점/45점), 2위 은행(29.1점/45점)

- ② 국민은행은 공급규모, 대출의 질적구성, 기술기반 투자에서 모두 양호한 실적을 보였고, 특히 기술금융 지원역량*에서 1위를 기록하여 '15년 상반기 이후 종합평가 2위내 진입

* 지원역량 평가(20점) : 기술금융 역량(인력·조직), 리스크관리 체계, 기술력반영 시스템 구축정도 등

< 소형 은행 >

- ① 대구은행은 공급규모와 기술금융 지원역량에서 1위를 기록하였고 대출의 질적구성 평가 등 타 분야에서도 양호한 성적으로 종합평가 1위
- ② 경남은행은 기술기반 투자확대 분야에서 1위를 기록하였고 기술금융 지원역량 등 타 분야에서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적으로 종합평가 2위

2 은행 자체 기술금융 레벨 심사 결과

- (평가 요소) ①전문인력 수, ②평가서 수준, ③실적요건(직전 단계 실시기간), ④물적 요건으로 자체평가 실시 여부 및 단계를 결정

※ 민간 기술평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「자체 TCB 역량 심의위원회」가 심사

- 심사 결과 자체 TCB평가 실시단계(레벨)가 상향될수록 자체 평가에 기반한 기술신용대출 가능 금액이 증가

< 평가요소 및 단계별 인센티브 >

항목	예비실시	정식실시		전면실시
	Level 1	Level 2	Level 3	Level 4
전문인력 수	5명 이상	10명 이상	15명 이상	20명 이상
(소형은행)	(3명 이상)	(5명 이상)	(7명 이상)	(10명 이상)
평가서 수준	70점이상 60%	70점이상 70%	70점이상 80%	80점이상 80%
(소형은행)	(70점이상 70%)	(70점이상 80%)	(80점이상 80%)	(80점이상 80%)
직전레벨 실시기간	-	6개월	6개월	1년
물적 요건	별도 조직 마련, 자체 모형 구축, 전산화 등			
자체 TCB대출 가능금액*	-	20%	50%	제한없음

* 직전 반기 TCB대출 총액 대비 비율

- 레벨 4 은행은 투자용 TCB평가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는 경우 자체 투자용 TCB평가가 가능

※ 투자용 TCB평가모형의 적정성 및 투자용 평가에 특화된 평가서 서식 보유 여부를 심사

- (평가 결과) '18.下, 2개 은행(부산, 대구)의 레벨 상승 및 5개 은행의 자체 투자용 TCB평가 실시를 승인

레벨	레벨 1	레벨 2	레벨 3	레벨 4
해당 은행	농협(-)	대구(↑)	경남(-)	산업(-), 신한(-), 우리(-), 하나(-), 기업(-), 국민(-), 부산(↑)

※ (자체 투자용 TCB평가 실시) 산업, 신한, 하나, 기업, 국민

3 시사점

□ 은행권은 지속적인 기술금융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해 미래성장성·수익성 평가 인프라의 기반을 구축

(1) (기술평가 역량) 레벨 4 은행은 전문평가 인프라 강화와 함께 전행적인 기술금융 역량 제고 및 고도화를 추진

< 10개 은행의 기술평가 역량 현황 >

	레벨 4							레벨 3	레벨 2	레벨 1
은행	산업	신한	우리	하나	기업	국민	부산	경남	대구	농협
전문인력	20명	20명	19명*	20명	20명	22명	10명	7명	6명	5명
조직	평가전담조직 내 전담분야별 세분화						평가전담조직			
평가모형	은행별 독자 기술평가모형 운영 (업종·업력 등에 따라 세분화)									
전산시스템	기술금융 프로세스 전반에 적용(평가결과 DB화 및 집중 포함(레벨1 유예))									

* 심사일 기준 일시적인 인원변동이 있었으며, 즉시 채용 완료(현재 20명)

- 기존 은행인력 中 기술평가 인력 확대를 위해 관련 교육, 자격증 취득 지원 및 인센티브 등을 활성화하여 기술력 반영 통합여신 모형에 대비

* (사례) 심사역·리스크관리역 등의 기술신용평가사 취득 증가, 기술평가인력Pool 운영, 기술금융 교육 및 자격증 관련 인사가점 제도 운영 등

- 기술평가 전문인력 활용 분야*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, IP가치평가모형 개발 등 기술금융 고도화에도 적극적

* (사례) 非금융 기업지원(창업, R&D, IP 컨설팅 등), 여신·투자심사 지원, 우수기업 선정, 유망분야 선정, 리스크 관리 참여 등

(2) (기술평가서 품질*) 평가서 품질 수준은 비교적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

※ 평가등급 적정성, 기술성 및 시장·사업성 의견 적정성 등을 심사

- 10개 은행의 평가서 품질 평균점수가 92.8점으로 전기(91점) 대비 상향되는 등 안정적 품질수준을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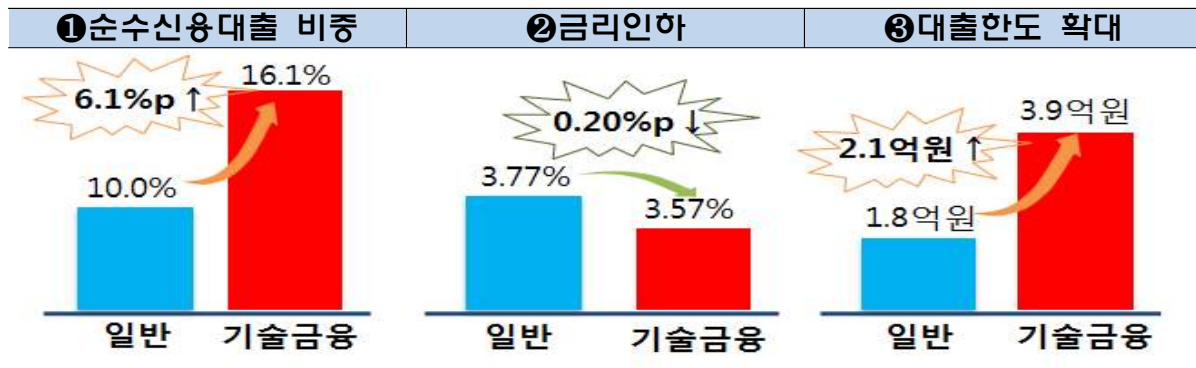
< 은행별 평가서 품질평가 결과 >

은행	레벨 4							레벨 3	레벨 2	레벨 1
	산업	신한	우리	하나	기업	국민	부산	경남	대구	농협
80점이상 평가서 비중	93%	93%	100%	93%	93%	100%	100%	100%	100%	90%
평균 점수	88.3	96.7	92.0	89.3	89.7	91.7	95.0	97.3	94.7	93.0

(3)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금융 대출은 일반 中企대출에 비해 금리 0.20%p 인하, 한도 2.1억원 확대 등 실질적 금융편익을 제공

- 특히, 기술금융 대출은 순수 신용대출 비중이 16.1%로 일반 중기대출의 10.0%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

< 기술금융대출 - 일반中企대출 비교('18.12월 기준) >



3 향후 계획

- 선진적 기술금융 관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TECH 평가 세부지표 등을 정비※ → '19년 상반기 평가('19년 하반기에 발표)부터 적용할 계획

※ (평가지표 개선 예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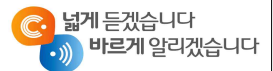
- ① 신용대출비중·증가율 평가 강화 : 배점 15점 → 20점
- ② 창업기업 지원실적 평가 강화 : (기존)차주수 → (개선)차주수, 대출잔액
- ③ 국가 R&D와 연계한 후속 사업화 자금 지원실적 평가 신설(5점)
- ④ IP담보대출 실적은 독립지표로 평가(3점)
- ⑤ 은행 자체 TCB평가 활용범위 확대 : (기존)대출 → (개선)대출+투자

- 이와 한편, 은행권의 **원활한 기술-신용평가 일원화**(통합여신모형 도입, '20년 도입 목표)를 지원하기 위해,
- 여신용 기술평가 모형과 기존 신용평가모형의 **결합효과**, **부도 변별력 개선 효과** 등을 지속 검증하는 한편,
- 은행권의 **통합여신모형 개발·적용**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·보급할 계획('19.下, 신용정보원)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